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다워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하루가 멀다하고 무서운 사건사고들로 세상이 어지럽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봉선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21개월을 근무해준 두 청년이 있다. 처음 두 사람이 아동센터에 오게 되었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고 한다. 첫날 센터에 출근한 청년은 얼굴도 준수하고 마음도 착하게 생겨서 조금은 안심되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학습도 봐주고 생활태도도 잘 지도해주면서 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또한 사람이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다. 요리에 관심도 많고 해주기를 좋아하는 청년은 주방선생님의 부재로 힘들어 하는 센터장님을 도와 편지를 열심히 만들어 내 보려고 하였다. “설거지는 내가 더 잘해” 하면서 공익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집해제날이 다가왔다.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그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였다. “사춘기를 잘 넘겨야 할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는지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1년에 두 번은 꼭 오고 싶다고 하였다. 센터장님과 생활복지사선생님, 그리고 내 선물까지 준비해줘서 놀랍고 고맙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오게 되는 공익요원에게도 한 아이 한 아이 특성을 얘기해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하니 기특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자기 밖에 모른다고 말할 하지만 진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정을 쏟아주는 사람들이 더 많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두 아름다운 청년의 앞날에 큰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

“원장님 저는 2022년 2월9일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날 이예요. 제가 센터에 오게 된 날이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야기한다. 센터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아이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나 끝나서 집에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힘들다고 투정부리고 짜증을 내도, 자격증 시험에 자주 떨어져서 좌절 할 때도 한결 같이 믿어주고 용기를 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포기했을 거라고 하였다.

네일샵에 취업을 한 아이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꿈을 이야기 하였다. 잘 적응하고 열심히 배워서 개인샵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였다. 글도 잘 써서 백일장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빨리 기본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였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젊은 나이에 센터에 와서 5-6년, 길게는 9년을 오직 아이들을 위해 애써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절로 생겼다. “선생님은 나라를 구하셨어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간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언제라도 도움 일이 있으면 연락해주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지난주에 진행된 서울대인턴쉽에서도 바쁜 와중에 한 걸음에 달려와 멘토링을 진행해준 진솔지휘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0대 시절 방향했던 시간들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지휘자님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공감과 함께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에 진심이 묻어났다.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전문회사를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30여년째 후원해 주시는 다원엔컴퍼니의 조서운 회장은 중요한 미팅도 미루고 아이들을 반겨주고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기업탐방을 하게 해주었다. 기업의 가치를 공익실현에 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꽃을 활짝 피어 낼 때까지 물을 주고 최고의 양분을 주어야 하겠다.

社說

국가기간산업 동맥 철도 멈춰선 안된다

내달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

철도노조 광주지부가 다음 달 5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 26일에는 광주송정역과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지방본부 야간총회’를 가졌다. 당장은 업무 공백이나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달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여객과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이유는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안도 외주·인력감축 중단과 4조 2교대 승인, 정부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 임금체불 해결, 승진포인트제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중단 등이다. ‘대부분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상당 부분 노사가 합의했거나 정부 기준에 따른 요구들’이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신설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은 커녕 퇴려 정원을 감축하는 등 외주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파업을 지지할 수는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

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유가가 급등하고,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던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9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강경한 관세론을 주창해 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한국경제에는 악재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렸다. 여기에 얼마 전 방한한 IMF 한국미션단마저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동맥인 철도가 멈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은 정부와 코레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를 멈추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한 철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노조와 합의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노조도 손쉬운 파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을 보고 더 큰 미래를 그려야 한다. 파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상황인 철도대란을 막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NASA 인정한 완도 해조류 세계화 돼야

신우철 군수 블루카본 등 협의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해조류의 우수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 19일부터 NASA와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식품, 미래 식량, 블루카본 등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연구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 기능을 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NASA는 지난 2021년 완도의 해조류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신 군수는 이번 NASA 방문 기간 완도의 해조류 양식 기술과 해조류의 우수성, 블루카본의 가치 등을 설명했다. NASA에 이어 ARPA-E도 방문했다. ARPA-E는 지난 1월 한미에

너지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을 방문했다. 신 군수는 에블린 엔 왕 ARPA-E 원장 등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매년 해수 온도의 상승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의 ‘블루카본’이라는 해양 생태계 자원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크다. 완도군은 블루카본을 풍부하게 보유한 청정 지역으로 해조류(2만 7000ha, 346만 톤, 생산량 전국 1위)와 잘피(1200ha)를 포함해 염생식물, 연산호, 갯벌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

해조류와 잘피는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NASA와 ARPA-E의 관심은 완도군의 블루카본 자원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완도군이 블루카본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개장해 한 소년이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요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ROSE),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듀오곡인 ‘아파트(APT)’다. 최근 국내 가요계를 휩쓸고 있고, 빌보드 차트 10위권까지 진입하면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어원이지만 조금씩 변형돼 한국어로 아파트가 됐다. 한국의 아파트는 분양용 다중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높다.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서다. 아파트의 높은 인기에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 1955만호 가운데 아파트는 1263만호로 총 주택의 64.6%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0%(36만호) 증가했다고 한다.

아파트의 큰 장점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꼽을 수 있다. 입지, 주변환경, 녹지공간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치솟는 아파트값도 문제지만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층간소음으로 심할 경우 칼부림에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생긴 해묵은 문제지만 수십 년간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대부분 아랫집의 소음 자제 부탁이나 항의를 기본 나빠하거나 무시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더구나 관리실에 얘기해도 뽀족한 방법이 없고, 경찰이 출동해도 대응이 어렵다.

그간 층간소음에 뒷짐을 지던 정부와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책을 속속 내놓아 반갑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근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바닥구조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 → 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이다. 실제 LH 연구진은 1등급 바닥구조 위에서 발을 세게 굴렀지만 소음 측정 결과 35dB으로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기준치(40dB) 이상의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 소음세대에 경고음을 울리는 ‘노이즈가드’ 시스템도 선보였다. 강화된 소음기준이 층간소음 분쟁을 종식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건축비를 아낀다며 날림으로 지은 건설사 탓에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된 만큼, 업계 관행에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